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

경제전망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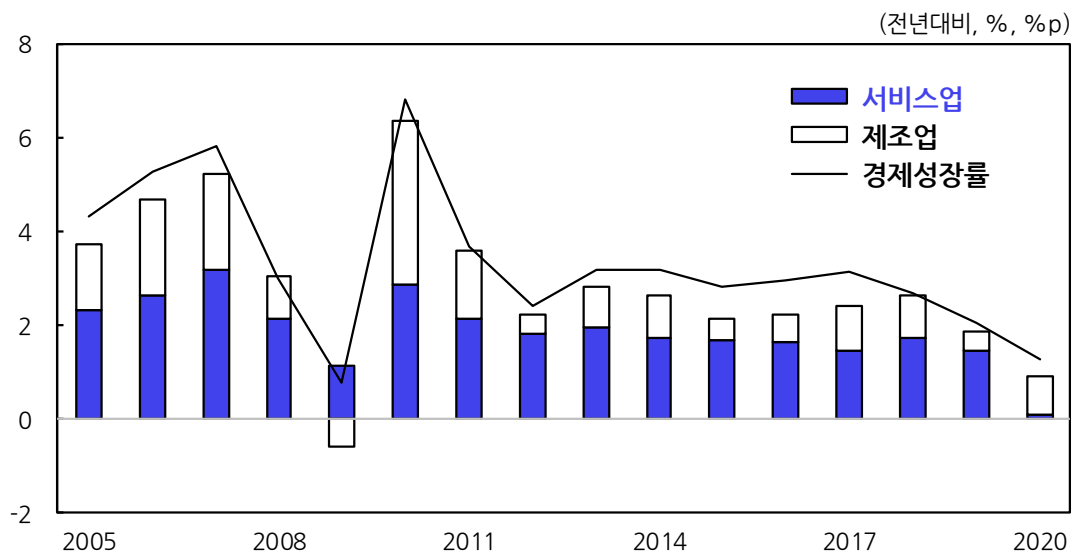
1. 문제제기

■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었으며,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

●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.3%(전기대비 -1.4%)로 하락함.

● 미국,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3월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, 향후 수출이 부진해지며 제조업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음.

경제성장률과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



주: 2020년은 1/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기준임.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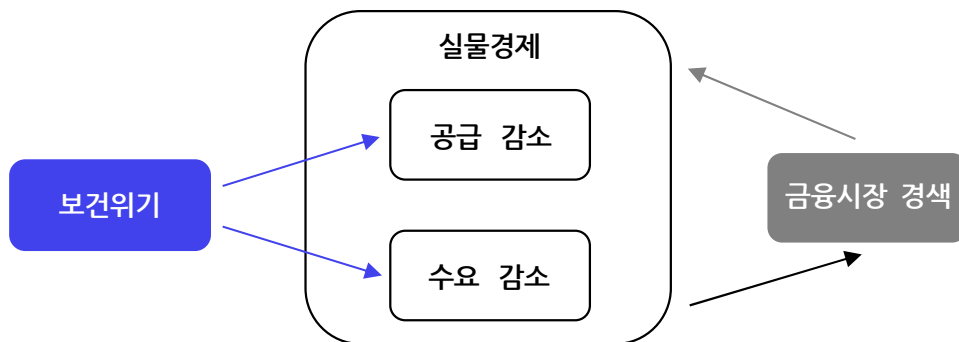
■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향후 거시경제 흐름을 가늠하고자 함.

2.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 보건위기

■ 코로나19 보건위기는 공급 측과 수요 측 모두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하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.

- (공급 경로) 코로나19 감염, 격리, 가족돌봄 등에 따라 노동공급이 감소하였으며,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폐쇄도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
 -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에 따라 한 부문에서 발생한 생산차질은 전·후방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며, 공급 충격이 대내외 경제로 확산됨.
- (수요 경로) 코로나19 감염 우려, 경기 하방위험 및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축소되고, 대외경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도 위축됨.
 - 공급과 수요 충격에 따른 소득 감소는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됨.
- (금융 경로)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경우,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도 확대됨.
 -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, 자영업자, 가계가 파산할 경우, 공급과 수요가 더욱 위축되며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음.
 - 대규모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자금경색을 겪으며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경우,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증폭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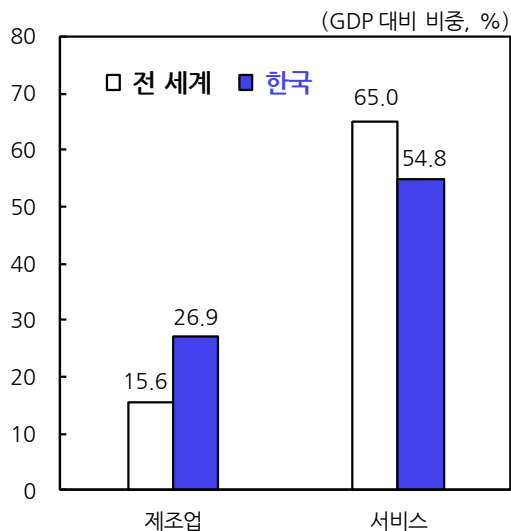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경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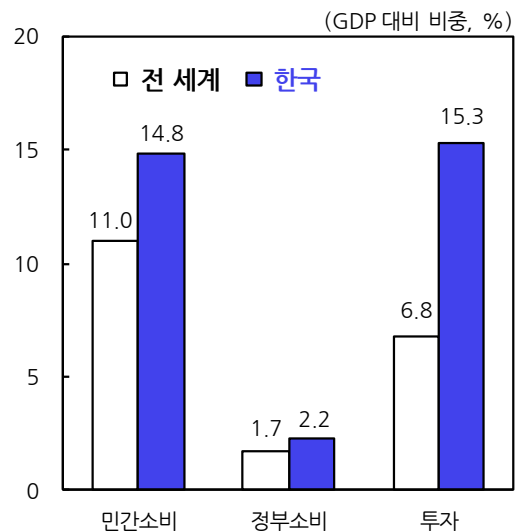
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,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.

-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, 수출 측면에서도 글로벌 소비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통상의 경기변동에서는 경기수축기에 투자가 소비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하나,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아직까지 소비 관련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어 있음.
 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, 향후 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면 지연된 투자가 재개되면서 2020년 전체로는 투자 부진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.
-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,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
 - 가계부문에서도 내구재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제조업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
- 한국경제는 제조업과 밀접한 글로벌 투자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,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투자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도 빠르게 둔화됨.
 - 다만, 반도체 등 대면접촉을 일부 대체하는 IT 관련 품목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, 주요국의 경기 부양정책도 수출 부진을 부분적으로 완화함.

GDP 대비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



GDP의 글로벌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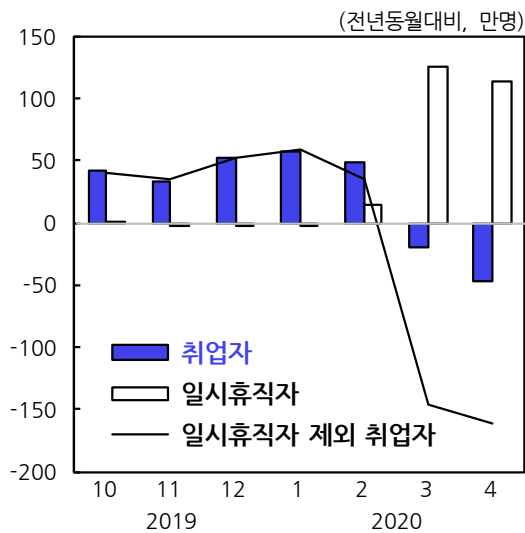


주: 경제활동별 비중은 2017년 자료이며, 글로벌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4년 자료임.
 자료: WDI, 한국은행, WIO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.

■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,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에도 고용 충격이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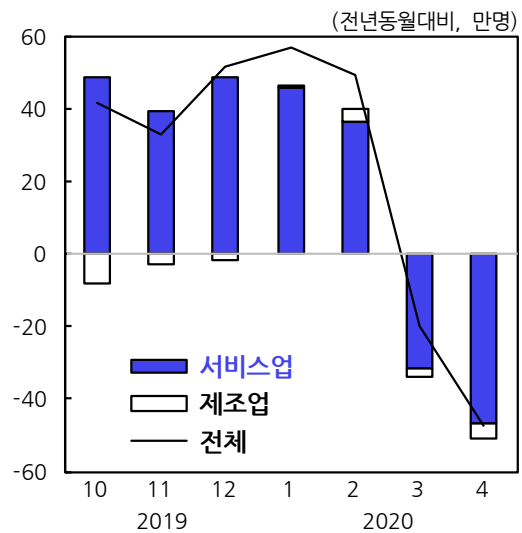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수도 급증하고 있음.
 -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60만명 증가에서 4월 161만명 감소로 전환됨.
 -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어, 취업자 수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성장세 둔화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.
 - 만약 코로나19의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며 관련 서비스업생산이 다시 확대될 경우 일시휴직자가 빠르게 복귀하고 취업자 수도 회복될 수 있음.
-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며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는 경우, 제조업뿐 아니라 연관 서비스업에까지 고용 충격이 파급됨.
 -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조업의 생산 측면상 연관된 서비스업뿐 아니라, 비수도권의 제조업 중심 지역에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고용에도 파급됨.
-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와 구직자 간 매칭에 시간이 소요되어, 고용은 경기와 시차를 두고 회복됨.

취업자와 일시휴직자 수 증감



자료: 통계청.

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

3. 한국 거시경제 경로에 대한 전망—시나리오별 분석

■ 현 사태의 근원인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, **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고자 함.**

- 코로나19의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성

■ **(기준 시나리오)**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,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

- 국내에서는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로 전환된 5월부터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되고,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활동이 대부분 정상화
- 해외에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되고, 지연되었던 투자도 재개
- 국가 간 이동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2021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

■ **(상위 시나리오)**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내년에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정상화

- 국내에서는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로 전환된 5월부터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
- 해외에서는 3/4분기에 경제활동이 가시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서비스소비의 위축에 제한
- 향후 코로나19 환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, 코로나19에 대응할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

■ **(하위 시나리오)**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

- 국내와 해외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확대되며 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, 감염 위험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금년 말까지 상당히 제한
-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며, 일부 취약 국가와 산업에서 유동성경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소비와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위축
-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빈번하게 발생
- 내년에도 국가 간 인적이동이 대부분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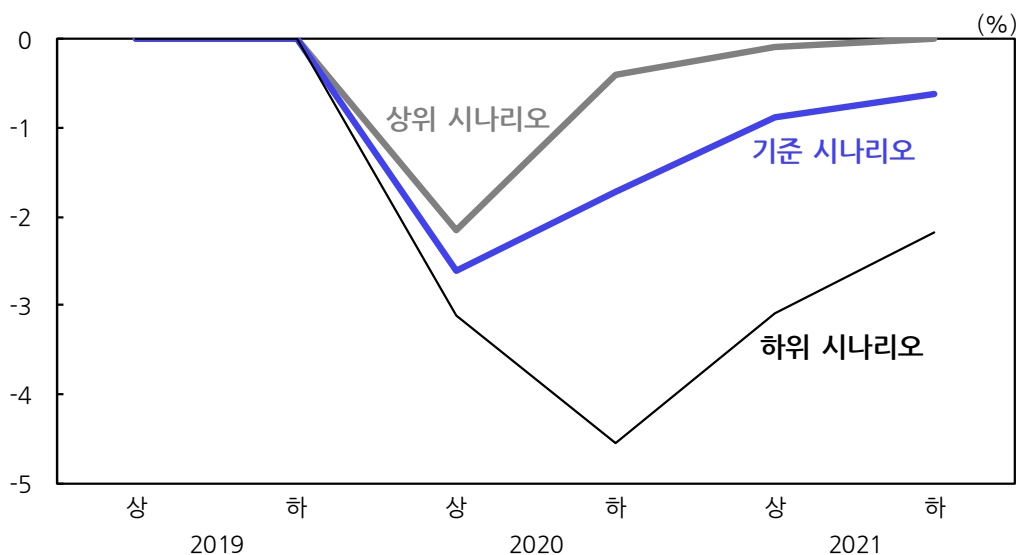
■ 분석 결과,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.2%를, 상위와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1.1%와 -1.6%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

-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거시경제 경로도 시나리오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.

■ 기준 시나리오에서 대외수요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GDP는 2021년에도 기존 경로를 유의미한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분석됨.

-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며 내국인의 국내소비 위축은 올해 말에 대부분 해소 되겠으나, 국가 간 이동제한의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는 내년에도 부진이 지속됨.
- 하반기에는 대외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상품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됨.
- 고용의 경우 경기와 시차를 두고 내년부터 회복됨.
- 투자 지연에 따라 생산능력이 축소되어 우리 경제의 GDP는 내년에도 기존 경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.

시나리오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준 GDP 경로와의 격차



주: 기준 GDP 경로는 『KDI 경제전망』(2019년 하반기) 기준임.

■ **상위 시나리오**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**우리 경제의 GDP가 2020년 말 기존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됨.**

-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국내 내구재소비는 하반기에 대부분 보충됨.
- 글로벌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도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함.
- 고용과 국내 투자가 대부분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이 기존 경로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함.
- 다만, 국가 간 이동제한과 기피심리는 일부 남아 있어, 해외여행 감소로 인한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의 부진은 올해 말까지 지속됨.

■ **하위 시나리오**의 경우,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이 지속되면서 **우리 경제의 GDP는 2021년에도 기존 경로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분석됨.**

-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과 소득 감소로 인해 내년에도 소비 부진이 지속됨.
 -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의 회복도 지연됨.
- 수출은 글로벌 투자 부진과 공급망 교란에 따라 급격하게 위축된 후,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침.
- 일부 취약 기업과 가게가 파산하고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면서,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회복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됨.
-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저하되고, 국제교류와 기술혁신이 제한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이 발생하여 중장기적 GDP 경로가 하향 조정됨.

시나리오별 경제성장을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	2020			2021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상위 시나리오	0.3	1.8	1.1	4.9	2.6	3.7
기준 시나리오	-0.2	0.5	0.2	4.6	3.3	3.9
하위 시나리오	-0.7	-2.5	-1.6	2.8	4.8	3.8

4.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

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의 GDP는 기존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며, 향후 GDP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- GDP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인인 코로나19의 확산 기간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
-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.2%를, 상위와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1.1%와 -1.6%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

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,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함.

-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,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임.
-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 운용함으로써 경기 충격을 완화할 필요
-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이 발생한다면 생산능력이 저하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,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.
-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
 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뿐 아니라, 신흥국 채무의 상환 유예,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, 거시정책 조정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함.

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,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

-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.
-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,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
-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